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19. 12.20(금) / 총 5매(본문3)	
담당 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자	과장 박병석, 사무관 김병철, 전문위원 문경수 • ☎ (044) 201-3897, 3906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

-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,400원 → 4,900원으로 47.9% 내려

-동일 서비스-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.9% 인하될 예정이다.

○ 최장거리(80.2km)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(1종 차량)의 경우 9,400원에서 4,900원으로 4,500원 인하(47.9%)되고, 대형 화물차(4종 차량)는 13,400원에서 6,600원으로 인하(50.7%)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.

* (1종, 소형차) 9,400원→4,900원 (2종, 중형차) 9,600원→5,000원 (3종, 대형차) 10,000원→5,200원 (4종, 대형 화물차) 13,400원→6,600원 (5종, 특수 화물차) 15,800원→7,600원

□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,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,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

- 그러나, 통행료가 **재정고속도로 대비 2.09배**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(지선)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**이용자 및 국회**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**지속적으로 제기**되어 왔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(지선)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‘**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**’(한국교통연구원)에 착수하였다.
-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“**도공 선투자 방식**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,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**유료도로법을 개정***하였다.
- *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
- “도공 선투자 방식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**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**하고,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**민자사업 종료 이후(32년~)**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**투자금을 회수**하는 방식이다.
-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~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**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***할 수 있어 **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*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(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)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,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「**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***(18.8월)」을 마련하여 **통행료 인하**를

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.

*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'18년 1.43배 → '20년 1.3배 → '22년 1.1배로 단계적 인하

○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,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,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앞으로도 정부는 ‘동일 서비스-동일 요금’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(한국교통연구원)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'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” 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



참고 2

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('18.8월)

비전

- ◇ 동일서비스-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
- ◇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

목표

- ◇ [운영]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
* 재정 대비 '18년 1.43배 → '20년 1.3배 내외 → '22년 1.1배 내외
- ◇ [신규] 재정도로 통행료를 감안하여 통행료 수준 결정

추진전략

- ◇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행료 관리 방안 수립

	1단계(~'20년)	2단계(~'22년)	3단계('22년~)
운영 노선	1. 재정고속도로 대비 1.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추진		
	천안논산(2.09배) 대구부산(2.33배) 서울춘천(1.50배)	인천공항(2.28배) 인천대교(2.89배)	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
	2. 재정고속도로 대비 1.2~1.5배 수준인 노선은 자금재조달 추진		
	구리포천(1.23배)	광주원주(1.24배) 상주영천(1.31배)	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
	3. 재정고속도로 대비 1.1배 내외인 노선은 현 통행료 수준 지속관리		
	부산신항(1.19배) 인천김포(1.13배) 안양성남(0.95배)	부산울산(1.18배) 서수원평택(1.17배) 수원광명(1.18배)	모니터링 및 통행료 격차 확대방지
신규 노선	4. 사업추진 단계별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강화		
	① (제안서 검토 단계) 신규 제안 노선에 대해 재정요금 수준으로 추진 검토		
	② (협상대상자 선정 단계) 사업자 평가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 상향		
③ (실시협약 단계) 운영기간 탄력 설정,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, 재정-민자/ 민자-민자 연계 이용시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을 통해 적정수준 유지			